

#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4월 2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우리 가족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 순 모 -

저는 부모님이 우상종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경기도 고양시 벽제로 이사하고 두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비교적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탄불로 난방을 하던 때였는데 제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가 나왔던 일이 잊히질 않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안산시로 이주하였습니다.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였으나 저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0년 전 종기가 나서 치료를 받았던 다리가 갑자기 쭈시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열이 나면서 며칠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고 얼마 전에 찾아와서 전도하시던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지만 구역장님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리고 제 몸의 아픈 곳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분을 보내주시면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에 놀랍게도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는 수구역장님 한 분이 저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전에는 전도하러 오는 분들을 싫어했는데 그날은

그분이 매우 반갑고 저를 찾아준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크게 기뻐하시며, “내일 원곡동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있어요. 저랑 같이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조용목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건강해져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린 1988년도였습니다. 수구역장님을 따라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안양 은혜와진리교회에 가서 보니 예배하는 성전 안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주체할 수 없게 눈물, 콧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곳 안산에 교회당이 세워질 때까지 안양으로 교회를 오가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한지 1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남편도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다른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도 저희의 손을 잡고 같이 교회에 다니며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웠습니다. 주일에 것처럼 온 식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듬해에 어느 날부터 심하게 감기몸살을 앓듯이 제 몸에서 높은 열이 나고 땀이 줄줄 흐르는가 하면, 또 온몸이 시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여러 군데 큰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모두 신경성 질환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만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여름날에도 방에 난방을 하고 두터운 솜이불을 덮고 비오듯 하는 땀을 쏟으면서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아픔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고 힘을 얻어 지내던 중에 전원성전에서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그 성회에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머리의 통증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유의 은혜에 감격하여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소리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비어 있는 자리를 보면 나의 책임인 것 같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안수집사, 저는 권사 직분을 받아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즐거움이 더 크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두 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장성하여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의 해군부대에서 영관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큰아들은 군 복음화를 위한 일에도 헌신하면서 대령 진급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 가족도 우리 부부와 같이 안산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뿌듯하고 것처럼 저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과 치료가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처음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크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병원과 검사와 수술 일정이 정해지고, 수술과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을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치유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훌륭한 교수님의 집도하에 수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암주사를 예정한 것보다 덜 맞은 상태에서 완치가 되어 6개월마다 추적 검사만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자주 심방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힘을 더해 주신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과 교구와 구역의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가 치료받는 동안 손자를 위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도록 해군사관학교 입학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잘 유지하며 지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10단원 :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

**(제46과) 기도생활**

• **본문** : 마가복음 9:14-29

• **요절**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 **찬송** : 340장(새찬송가 542장), 484장(새찬송가 365장)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계속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생명도 지속적인 영적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평안할 때에도 감사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난을 당하여 근심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삼상 1:10, 약 5:13).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삼상 12:23).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권면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기도생활에 힘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기도생활에 힘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1. 기도의 능력은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 산상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 남아 있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제자들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때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이의 형편과 제자들의 무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고, 아이를 데려오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여받았고(막 6:7) 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막 6: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하였으므로 능히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고 분부하셨습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러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곳에 있던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활약은 대단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수천명씩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공모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금하였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대제사장은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을 풀어 주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로 돌아가 겪었던 일을 말하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은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행 4:3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지 14년에 유다는 앗수르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아 많은 성읍을 빼앗겼습니다(왕하 18:13). 그 때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주어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앗수르왕은 다시금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앗수르 장군 랍사게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앗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앗수르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왕에게 보낸 마지막 통첩이 적힌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격려하시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으며, 그날 밤에 여호와와의 사자가 앗수르 진에서 185,000명을 죽이자 산헤립은 두려워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9)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마땅히 할 바는 즉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대로 강한 손을 내밀어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